

전 남

광양지역 농협 과다경쟁 산지유통센터 설립 무산

농식품부 지원사업 탈락...지역농민 피해 막대

광양지역 일부 농협간 이견으로 내년 정부가 추진할 산지유통 종합센터(APC)의 설립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추진한 2013년도 APC 추가 사업을 받아 신청했으나 동광양농협과 광양농협은 공동계산액 미충족으로 1차 탈락하고, 광양원에농협은 조건부(공동계산액 50억)로 통과했으나 최종 심사에서 광양농협 등의 민원 제기과 일부 농협의 비협조로 탈락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APC 사업자 추가 선정 방침이 정해지자 광양시가 주도해 지역 농협들과 협의의 절차를 거쳐 광양농협, 원예농협, 동광양농협 등에서 사업신청을 했다.

그러나 최종심사에서 지역 일부 농

협이 서류 탈락한 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원예농협을 지역 농협과 공동사업 법인을 설립해 신청하도록 조건부 승인했지만 일부 농협의 비협조로 공동사업법인 출범이 좌초돼 최종 취소 통보를 받았다.

APC 사업 시행이래 특정 농협이 선정되고도 지역 농협들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공동사업 법인이 설립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결국 광양시 관내 농협이나 지자체는 향후 5년간 APC 사업 신청 및 지원을 제한 받게 되고, 지역 농업인들의 불이익과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원협 장준호 전무는 "친환경 농산물의 수도권 진출 교두보 확보와 규격화된 제품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물류 표준화 및 규격공동 출하사업 등을 연계해 선진농업으로 진입하

는 기회였다"면서 "일부 농협의 위기의식과 비협조로 최종 탈락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광양농협 관계자는 "산지유통 종합 사업은 광양시 관계자가 농협간 의견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초기 첫단추를 잘못 채워 사업에서 탈락한 원인이 됐다"면서 "늦게라도 각 농협과 의견 조율을 공동사업 법인을 설립해 해결해야 하지만 형식상 농협들이 참여한 것 처럼 서류를 조작해 특정 농협이 선정되도록 추진해서 합의해 주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어서 적극 조율을 나섰으나 농협들간 지나친 경쟁속에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내년에 지자체적으로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산지 유통센터 건립 등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특등급 급감, 2·3등급은 급증...벼 품질 크게 떨어져

올 공공비축미 등급...농가 수백억 소득 감소

올해 벼 품질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공공비축미 등급이 목표 대비 80%를 넘은 가운데 등급을 분석한 결과 최상위 등급인 '특등' 비율이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 특등비율은 12.5%에 불과, 지난해 33.9%에 비해 무려 21.4%포인트 줄었다.

반면에 하위 등급인 2등과 3등은 16%와 5.6%로 지난해 1.5%와 0.03%와 비교해 적게는 10배에서 180여배 늘었다. 예년 같으면 2등, 3등은 합해도 2%를 넘지 않는 데다 3등은 사실상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품질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잘 알 수 있다.

1등 비율은 올해 65.9%, 지난해는 64.6%로 비슷했다. 이는 지난 여름 태풍 불라벤과 산

바의 영향으로 벼 이삭마름(백수·白穗)과 염해(鹽害), 도복(倒伏·쓰러짐)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전남도가 집계한 당시 태풍 불라벤과 산바의 비 피해는 백수와 염해가 4만2434ha, 물 잠김 7566ha, 쓰러짐 6569ha 등 전체 벼 식부면적 17만2100여ha의 36.9%에 달했다.

우선 지급금은 특등 기준 5만610원, 1등급은 4만9000원, 2등급은 4만6820원, 3등급은 4만1670원으로 가격 차이가 적지 않다.

공공비축미 최종 매입가격은 전국 평균산지 쌀값을 조사한 후 내년 1월께 확정돼 사후정산한다.

정산 이후 최종 매입가격은 1등급 기준 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500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등 비율 하락과 낮은 등급 비율 증가로 수백억원의 소득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광주·전남지역 쌀 생산량도 70만t으로 지난해보다 15.1%가 줄어드는 등 최악의 흉년을 기록했다. /장철수기자 bungy@kwangju.co.kr

담양군 관내 대학생 대상

겨울방학 인턴사업 모집

담양군이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중 인턴사업을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18세 이상 29세 이하의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인턴 참여 희망자는 14일 까지 담양군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접수도 가능하다.

군은 공정한 선발을 위해 학력, 자격증, 여가 점수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2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담양군 관내 대학생 대상 겨울방학 인턴사업 모집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18세 이상 29세 이하의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광양시청 공무원들이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난해 12월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국제 우호도시인 필리핀 까가안테오로시 이재민을 돕기 위한 의류를 모으고 있다. 시는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의류를 수집해 현지에 보낼 예정이다. <광양시 제공>

향일암 해넘이·해맞이 보러오세요

31~내년 1일 일출제

'제야의 종' 타종식도

국내 최고의 해돋이 명소로 손꼽히는 여수 향일암에서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제16회 여수 향일암 일출제'가 열린다.

일출제 추진위원회는 이번 일출제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치고 힘든 시민과 전국 관광객들을 위해 미래 번영의 기쁨과 새 희망, 감동과 흥 등이 어우러진 축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일출제는 ▲해넘이(일출 오후 5시 28분 예정) ▲개막행사 ▲'제야의 종' 타종식 ▲일출행사 등 크게 4개로 나눠 진행된다.

31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해넘이 행사는 금오산 해넘이 감상과 길놀이 퍼레이드로 구성된다. 개막행사는 밤 8시에 '엄원의 불' 점화와 개막 축하공연, 탐방객 장기자랑, 댄스 페스티벌 등으로 꾸며진다.



여수 향일암 일출

'제야의 종' 타종식은 향일암에서 31일 자정 5초전부터 모든 관광객의 카운트 다운과 함께 시민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33회를 타종한다.

새해 1월 1일 새벽 6시부터 진행되는 일출행사는 개벽을 알리는 '비나리 기원 굿'을 시작으로 일출기원 제례가 진행된다. 관광객들은 일출(오전 7시 36분 예정)과 동

시에 소망실은 풍선 날리기로 목을 해를 정리하고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게 된다.

행사기간 동안 향일암은 무료로 개방되며, 행사장에는 차량출입이 통제된다.

또한 관광객 편의를 위해 죽포 삼거리와 성두 주차장에서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여수=임택기자 mtlim@

순천시 무기계약직 130명 호봉제 전환

내년 1월 1일부터...전남도내서 처음

순천시가 도내 처음으로 무기 계약직의 급여를 호봉제로 전환하는 처우 개선에 들어갔다.

순천시는 "전남에서 최초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 무기계약직 직원 급여체계를 '단가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호봉제로 전환되는 무기계약직 근무자는 미화요원, 청원경찰을 제외한 행정보조, 교통지도원, 현직근무자 등 130여 명이다.

지금까지 무기 계약직은 일반 정규직과 동일하게 고용 정년은 보장되거나 급여는 1년 단위 계약 연장개념으로 임용 당시 정해진 급여가 정년까지 거의 변동없는 '단가제'였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근무연수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급여도 올라가는 호봉제 적용을 받게 됐다.

무기계약직의 호봉제 전환은 일부 타 시·도 지자체에서 시행중으로 전남 22개 시군에서는 순천시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4·11 총선 시장 보선에서 당선된 조중훈 현 시장이 내건 선거공약 이행의 일환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일반 정규직은 임용 즉시 1호봉부터 적용이 되나 이번 무기계약직의 경우 몇 호봉부터 적용할지 아직 미정"이라며 "근무연한 등을 고려해 적절한 호봉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함초 부산물로 닭사료 첨가제 개발

섭취량 줄고 살찌는 효율은 늘어

전남농기원 축산연구

최근 국제 곡물가의 상승으로 양계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가장 되는 가운데 함초 찌꺼기 등 부산물을 활용한 육계용(肉用) 사료 첨가제가 개발돼 양계농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는 최근 함초 부산물에 당밀 등을 넣어 30도에서 2시간 동안 발효시킨 사료첨가제를 개발했다.

첨가제를 배합사료에 0.5% 넣어 갖 갯 병아리에 35일간 급여한 결과 기존 배합사료 대비 사료 섭

취량은 12.7% 줄어든 반면 섭취량 대비, 살이 찌는 효율은 11.4% 증가했다.

또 육질의 질긴 정도를 나타내는 '전단력'이 23% 줄고, 육질의 맛을 결정하는 '보수력'은 8%가 증가하는 등 육질개선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리당 생산비 감소액은 125원으로 국내 육계농가의 평균 사용수가 4만324여 마리인 점을 고려하면 농가당 540만원의 생산비 절감효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화 / 제 / 집 / 중 / 안 / 손 / 에 / 잡 / 히 / 는 / 대 / 능 / 한 / 자 / 외 / 국 / 어

대한민국 대표 한자 외국어 SERIES



한권으로 해결하는 외국어 도서의 최강자

한자, 외국어가 한 손에 쏙! 언제 어디서나 갖고 다니며 읽는 편리한 실용민첩 포켓북 시리즈. 대능교육만의 노하우가 담긴 포켓북 시리즈는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한자능력검정 시험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7,000원
* 알파벳기 여행회화 * 시리즈
상황별 핵심 문형과 활용단어로 구성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6,000원
교육부 지정 필수단어 수록
각 주제에 맞는 유용한 팁과 응용회화로 구성

한자능력검정 시험 시리즈
대능한자연구회
진검승부 한자능력검정 시험 시리즈
급수별 한자색인, 다양한 활용단어 수록
예상문제를 통한 기술문제의 생황, 학습성취도 평가

수험생을 위한 맞춤 고사성어백과
대능·인사·한자능력검정시험 및 국가직 기출문제 포시
알파벳기 고사성어백과, 값 8,500원

대표전화 : (02)2634-2007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